

백출과 잔대의 자의복용후 발생한 급성 신손상 증례보고

대전을지대학병원 내과학교실 신장내과

나영민, 방기태, 신종호, 정진욱

A Case of Acute Kidney Injury after Ingesting *Atratyloides Japonica* and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Youngmin Na, Kitae Bang, Jongho Shin, Jinuk Jeong

Department of Nephrology, Eulji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서론: 2000년대 들어 중국산 한약재 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등을 복용한 환자들에서 신부전이 급속히 진행하고 신장의 간질성 섬유화를 주된 조직학적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증이 발견되어 CHN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러한 CHN은 환자의 신조직에서 Aristolochic acids의 음 부산물이 발견되어 CHN의 주원인 물질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본 저널에서는 중산 한약재가 아닌 국내 야생에서 자생하는 생약재인 백출(*Atratyloides Japonica*), 잔대(*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를 복용후 급격한 악화를 나타낸 신부전 증례가 있었으며 동물 실험과 관련된 연구 외에는 위의 약제에 의한 신부전 증례가 없었던 사실로 증례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환자: 홍○익, 남자 62세

주소: 소변량 저하, 전신 부종

현병력: 상기 환자 과거력상 내원 5년 전에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 유지 하던 자로 보신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약초를 달여 1차례 복용한뒤 발생한 소변량 저하와 전신 부종이 내원 2주전부터 있어 본원 신장 내과에 입원하였다.

과거력과 가족력: 5년 전에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약물 치료 유지중이며 특이 가족력 없음

진찰 소견: 환자는 피로감과 함께 전신 쇠약, 전신의 부종과 소변량 감소를 호소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10/70 mmHg, 맥박 70회/min, 호흡수 20회/min, 체온 37.3도 였고 진찰 소견에서 양쪽 늑골척추각의 압통이 있었다.

검사 소견: 본원 검사결과에서 일반 혈액학적 검사상 혈색소 11.7g/dl, 헤마토크리트 32.9%, 백혈구 8,090/mm³, 혈소판 50,000/mm³ 이었으며 동맥혈 가스 검사상 pH 7.35, PaCO₂ 31 mmHg, PaO₂ 142 mmHg, HCO₃ 17.1 mEq/L이었다. 혈청 화학 검사상 BUN/Cr 61/7.4 mg/dL이었으며 Na/K/Cl 139/3.8/106 mEq/L 이었다. 혈중 음이온 간격은 19 였다. 일반 소변 검사상 포도당은 +100 mg/dl, 단백질 1000 mg/dl, 적혈구 시야의 1/2 이상 /HPF, 백혈구 1-4개/HPF, pH 7.5, Reddish Color이었다. 24 시간 소변 검사상 단백질 494.8 mg/Day, 크레아티닌 청소율 8.6 ml/min이었다. 노 단백 전기영동상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 이었고 신조직 검사상 간질의 국소성 섬유화와 세뇨관의 위축을 보이는 세뇨관 간질성 신염의 소견이 보였다.

치료 및 경과: 신부전에 대하여 소변량 감소 및 전신 부종에 대하여 혈액 투석 경로를 통한 혈액 투석 치료를 시행하였다.

Key Words: 급성신부전, 백출, 잔대

Acute kidney injury, *Atratyloides Japonica*, *Adenophora Triphylla*